



## 동해해수청, '안전大 전환 집중안전점검' 추진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중앙부처·지자체·국민이 함께하는 '안전大 전환 집중안전점검'을 4.22.(월)~6.21.(금) 까지 총 6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점검대상은 항만·어항시설 및 건설현장 29개소, 위험물 하역시설 3개소, 여객터미널 1개소, 등대해양문화공간 2개소 등 총 39개소이다.

동해해수청은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점검방식을 민·관 합동점검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토목·건축·전기·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.

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, 대규모 보수·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 식별, 사용중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“집중안전점검 기간을 통해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여 미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·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동해지방해양수산청<br>운영지원과 | 책임자 | 과 장 | 한광섭 (033-520-611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주무관 | 김빛나 (033-520-6117) |



동해 해수청 전경